

함 성 호  
건축평론가, 시인  
by Haam Seong-ho

# 누군가 나를 설계하고 있다

**I am planing by someone**

## 창세기의 건축가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창세기 제2장 6절

우리는 신의 모형이고 신은 '무엇'을 위해 우리를 창조했다고, 이 기록은 전하고 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창조되었고, 신은 왜 굳이 자신의 모습으로 인간을 만들었으며, 신이 건축한 이 세계는 인간에게 과연 어떤 의미인가? 라는, 질문이 빠져있는 이 기록에서 신은 스스로의 부재를 말해 주고 있다. 나는 여기에 있지 않다. 그렇다. 신은 세계를 관망하실 뿐이다. 그리하여 세계와 함께하는 모든 실험은 인간에게 주어진다. 신은 자신을 복제한, 자신의 형상과 같은 모형으로 이 세계의 불확실함을 실험하고 있다. 그는 세계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세계의 모순을 기록하기 위해 존재하고 있다.

왜 역사가 반복되는지, 당신은 아는가? 그것은 특정한 상황에 대한 반복적 실험의 산물이다. 왜냐하면 신은 불변의 진리를 원하고, 자연은 엄청난 불확실함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신의 창조물 가운데 인간만이 유일하게 숲을 떠났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그것은 창조주와 피조물 간의 불화를 의미한다. 신의 건축은 실패했던 것이다. 창세기의 건축가는 자신의 건축 안에서 실패했다. 그리고 이후 수많은 건축가들이 그 실패를 답습한다.

## 도시의 꿈

아키그램 그룹의 <걸어 다니는 도시>는 이동 수단에 대한 인류의 끊임없는 집착을 말해준다. 이 도시는 거대한 다리가 달려있으며 도시 구성원들의 합의에 의해 필요한 장소로 이동하여 마치 유목민처럼 쾌적한 환경을 찾아다니게 된다. 그리고 이것은 공상적 사회주의자들, 순진한 공동체주의자들의 이상과 꿈을 대변하고 있다. 현실이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처럼 '걸어 다니는 도시' 또한 단지 환상으로 그쳤고, 그 후 아무에게도 영향을 주지 못했지만, 이후 도시에 있어서의 이동의 문제를 깊이 각인시키기에 충분했다.<sup>1)</sup> 꿈으로 끝난 시도는 꿈으로 완성되었기에 인간의 꿈속에서 더 오랜 생명력을 갖게 되고, 그 누구도 파괴하지 못하는 것이 되었다.

이동성에 대한 중요성은 르 꼬르뷔지에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속도를 좌우하는 도시는 성공을 좌우한다는 신념이 그에게는 있었다. 그에게 있어 이제 이동은 속도로 바뀌었다. 속도를 위해서는 당연히 도시 전체가 움직이는 것은 웃긴 일이었다. 이동을 테마로 한 '걸어 다니는 도시'는 길이 필요치 않았다. 그러나 속도를 위해서는 길이 필수적이었다. 속도는 능률과 효율의 상징이다. 시간이 돈이다 라는, 믿음에는 반드시 속도의 문제가 따르게 된다. 르 꼬르뷔지에의 <파리 보아잔 계획>은 새로운 20세기의 복된 삶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흥분으로 가득 차 있었다.

**금후 평면적으로 채워 넣어진 도시 — 비행기에서 처음으로 보게 되면 우리들은 어리둥절하게 될 것 같은 도시(프랑스 항공 회사의 사진을 보라)—가 있었던 곳에 그 대신 대기와 햇빛 속에 밝게 빛나는 수직의 도시가 건설된다. 지금까지는 면적의 70~80% 까지 밀집된 집에 의해서 덮여졌던 도시는 이제는 5% 밖에는 집이 들어설 수 없다. 나머지 95%는 간선도로, 주차장, 그리고 공원으로 배당된다. 나무 그늘로 덮인 보도는 2배, 4배로 늘어나게 된다. 마천루의 바로 밑의 정원은 사실상 이 새로운 도시의 지상을 광대한 정원으로 삼아 건설된다.**

— 어바니즘, 르 꼬르뷔지에

창세기의 기록과 같이 르 꼬르뷔지에의 발언에서도 인간은 아직도 모든 것 위에 군림한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자연에 대한 인간의 다스림이 도시에 대한 인간의 다스림으로 바뀌었을 뿐이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스리도록 되어있는 피조물이 스스로 숲을 버렸듯이 다다다다 지상에 붙어있던 마른 껍질 같은 집들을 제거하고 그 대신 높이 200

미터에 달하는 유리의 순수한 결정체를 그야말로 광대한 간격을 두고 건설하고, 바로 그 밑을 울창한 숲으로 만들려고 했던 도시주의자들의 꿈은 일거에 무너지고 말았다. 사람들은 울창한 숲이 들어설 자리에 더 빠른 속도를 위해 도로를 내고 그 광대한 간격을 집을 짓기 시작했다. 순수한 유리의 결정체들은 불과 1미터 50센티의 간격으로 쭉스러운 내부를 들켜버리게 되었으며, 광활한 면적의 숲 대신 한 줄로 늘어선 가로수들은 매연과 소음으로 그나마 말라 죽게 되었다. 그리고 아마 당신이 좀 더 예민한 독자라면 이 실패는 바로 당신이 살고 있는 도시의 풍경이라는 걸 쉽게 알아챌 수 있었을 것이다. 실패한 현실은 더 오래 비난받지만 그 비난의 이유 때문에 두고두고 회자된다. 신은 이 실패를 기록했다.

## 누군가 나를 설계하고 있다.

만일 당신이 아침 시간 뿐 아니라 하루의 어떤 시간도 별로 바쁠 것이 없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거나 실직자라면, 그것도 15층 이상의 편복도형 고층 아파트에 살고 있다면, 한 번 20층 복도에 매달려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촌의 풍경을 유심히 살펴보자. 거기에는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자동차 램프가 1/4 원을 이루며 조면 처리되어 있고, 화단은 때로는 경계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1층 세대의 시선을 가려 주는 커튼 역할을 하기도 하며 지상 주차의 구획을 확연히 구분해 주는 경계가 되어 주기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쓰레기 수거차의 위치가 쓰레기 수거차가 오기 전부터 정해져 있고, 놀이터의 위치는 늘 어머니의 감시에서 벗어나지 않는 위치에 자리 잡고 있다. 건너편 복도에서 당신과 같이 단지 내를 조감하는 또 한 사내가 있다는 것을 알아차린 순간 당신은 당신이 이 아파트에 입주하기 훨씬 전부터, 그리고 이 아파트가 지어지기 훨씬 전부터 이 아파트촌을 당신 보다 더 높은 위치에서 조감하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소스라치게 놀랄 것이다.

그리곤 건너편의 사내가 사라지고 당신이 사라지고, 화단의 나무들과 흙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17인치 컴퓨터 화면이 어두운 심연처럼 자리하고 있을 것이다. 마치 빅뱅 전의 우주처럼 작은 커서가 어두운 화면 위에서 미세하게 떨리며 폭발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거기에서 자동차와 모든 무작위적인 인간의 행동 특성들이 연구되고 분석되어져 어두운 컴퓨터 화면 안에서 이윽고 빛이 나타나고 빛들이 선을 이루며 화단과 나무와 지하주차, 램프와 건물들이 나타난다. 그리고 AUTO CAD 14 시스템 속에서 당신이 나타난다.<sup>2)</sup>

1) 1964년 영국의 젊은 건축가 그룹인 아키그램(Archigram)은 로보 모양을 한 약 40층 정도의 고층건물이 황량한 사막 위를 무리지어 이동하는 '걸어 다니는 도시(Walking City)'를 제안했다. 당시에는 단지 제안으로만 그쳤던 이 계획은 그 규모면에서는 비교가 되지 않지만 리비아의 '사막 녹지화 작업'에서 실현되었다. 공사 현장의 사령탑으로 쓰이는 이 캠프는 거대한 철골조 건물로 이루어졌고, 세련된 유리가 외벽을 이루고 있고, 공사가 진행됨에 따라 광활한 사막 위를 이동해 나가게끔 설계되어졌다. 건축학, 기계공학, 컴퓨터 제어공학, 철골 재료공학 등의 공동 연구의 결과였다. 미래는 과거에 있다.

2) 컴퓨터 화면 안에서의 선은 종이 위에서 그것과 달리 굵직하지 않고 미끄러진다. 캐드의 현실 속에서 흔적은 물리적인 흔적으로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지의 총물에 의해 기억된다. 캐드의 현실 속에서의 이미지의 흔적들은 캐드 밖의 현실 속에서 생성되는 물리적인 흔적들이 어떻게 이미지화 되고 있는가를 과정적으로 나열해 주고 있다.

만약 이런 사실들이 의심스럽다면 당신은 당신이 살고 있는 도시에서 어떤 식으로 죽음이 찾아오는지 상기에 보아야 한다. 도시는 모든 것이 점멸의 2진법적 체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리는 이미 헤매임의 황당함과 뜻하지 않는 발견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다. 이제는 잠시 그 신호의 체계를 잃으면 눈 깜짝 할 사이에 우리는 죽음과 직면한다. 횡단 신호 보다 빨리 달려 나가는 사람들, 직진 신호 보다 한 템포 빠르게 출발하는 자동차. 횡단보도로 뛰어드는 트럭과 손가락을 자르는 기계 톱날들. 병원에서 뒤바뀌는 아이들과 신호의 체계에 미숙한 미아들. 도시는 이처럼 당신을 길들이고 조정하며, 당신의 행동들을 예측 가능한 것으로 만들어 버린다.

당신은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만 당신이 신호를 배반하기 전까지는, 신호가 당신을 배반하기 전까지는 안전하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런 위험을 기꺼이 감수하는 것일까? 그 이유는 간단하다. 도시는 우리에게 속도를 주기 때문이다.

건축은 이런 속도의 사이사이에 존재하지만 결코 속도를 저해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가로에 늘어진 건물과 건물들 사이에는 아무런 연관이 없기 때문이다. 아니, 연관이 생기는 일 따위가 존재해서는 안 된다. 그 연관 때문에 신호를 놓쳐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건물과 건물은 선적으로 연결된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점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점과 점을 잇는 도로는 속도의 카니발리즘을 표방한다. 속도는 속도를 먹고 자란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희박해지고 도시는 이것을 조장하고 있다. 관계가 희박해 질수록 우리는 더 빨리 한 점에서 점으로 이동할 수 있다. 이 점과 점을 잇는 선은 엄밀히 말하자면 점이 모여 이루어지는 선의 개념이 아니다. 이 직선은 '곡선의 가로는 당나귀의 길, 직선의 가로는 인간의 길'이라는 현대 도시의 유일한 덕목이며, '우리는 단언한다. 인간은 기능적으로 직선을 행사하며, 인간의 행동과 사고는 직선·직각에 의해 지배된다는 것, 그리고 직선은 인간의 본능적인 수단이고 또한 사고의 높은 목적이라는 것'이라는 모더니즘의 경구처럼 도시의 주된 가치를 이루고 있다. 이 가치에 당신이 동의하든 그렇지 않든 상관없다. 당신의 동의와는 무관하게 도시는 이 가치에 의해서 건설되며, 당신은 그 곳에 살기 위해 몇 년 동안 주택 청약예금을 부려 은행을 드나들었다는 사실이다. 당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이 도시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에 관해 당신의 알리바이를 증명해 줄 것은 아무 것도 없다.

### 당신은 어떻게 해서 설계되고 있었는가?

그럼, 당신은 어떡하다 이 도시에 맞춰 설계되었는가? 직장 때문예? 여기서 태어났으므로? 학교 때문예? 그렇다. 당신은 그 모든 이유 때문에 여기에서 살게 되었다고 믿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모든

이유의 이면에는 편리로 귀착되는 근본적인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sup>3)</sup> — 속도의 직선은 점·선·면의 과정을 해체한다. 해체하는 즉시 그 모든 과정을 생략해 버리고 공간과 공간을 일치시켜 버린다. 영화 '스타트랙'에서 보여지는 순간 이동 광선은 '아키그램 그룹'이 꿈꾼 도시의 최종적인 진화를 그리고 있다. 길이 사라져 버리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길이 사라져 버린 자리에 또 무엇이 채워질 것인가? <파리의 보아잔 계획>처럼 숲이? 그 실패처럼 또 건물이? 그것은 아무도 예측하지 못 할 것이다. — 도시는 당신의 편리를 위해서 온갖 서비스를 다 한다. 싱크대는 음식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지는 주부의 행위를 정확히 예측하여 최소한의 동작으로 가장 움직이기 편리한 싱크대를 제공하고, 모든 교통수단은 러시아워에 맞춰 정확히 당신의 출근 시간을 관리하고 있다. 아파트의 엘리베이터는 분당 120미터의 적당한 속도로 당신의 수직이동을 돕고 있으며, 당신이 주말을 위해 도시의 근교에는 놀이동산과 유원지를 마련해 두고 있다. 모든 집은 최소한의 동선으로 이동하게끔 설계되어 있으며 적당한 근린공원으로 당신의 피로한 시신경에 녹색을 제공해 주는 것도 빠뜨리지 않는다. 영화관에서 일상의 일탈을 경험하고, TV의 9시 뉴스는 영화 보다 더 영화적인 현실을 생중계 한다. 광란과 질서가 피상적으로 작동한다.

모든 것이 피상적이기 때문에 그것이 주는 안전 때문에 당신은 여기에 있다. 그러나 그 안전마저 피상적이라는 것은 앞에서 증명한 바가 있다. 당신이 그 피상성에서 잠시 벗어 나오는 순간 당신 앞에는 깨끗하게 도장된, 차체를 보호하기 위한 자동차의 범퍼가 눈앞 가득 몰려올 것이다. 그리고 당신은 죽을 것이다. 당신의 죽음마저 도시의 건설자들은 설계하고 있다. 개인의 죽음을 감수하며 도시는 설계 된다.

도시는 불특정 다수가 거주하는 곳이다. 따라서 한 개인에 대한 예측이 불가능하다. 그 예측이 불가능해지므로 써 도시는 전체적인 통합을 지향하고 전체적인 시스템 속에 개인을 몰아넣는다. 수많은 도시의 인프라를 당신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면 당신은 중산층 이상의 사람이고 그렇지 않다면 당신은 은행의 현금 서비스를 이용해야 할 달의 청구서들을 해결 할 수 있는 그렇고 그런 부류일 것이다. 당신이 이용하는 쇼핑센터와 영화관과 은행의 위치는 내가 계획한 것이다. 당신의 거주지와 당신이 어떤 방식으로 도시의 편리를 이용하고 어떤 도로를 통해 출근을 해야 가장 빠르냐 하는 것도 내가 정한 것이다. 당신은 그 빛(태초의 빛/컴퓨터 모니터의 빛)을 따라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고 타임카드를 찍고, 퇴근을 한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시스템은 극히 불안정하다. 좀 더 안정적인 시스템을 위해 나는 당신을 실험 치료 치환해 데이터로 저장한다. 그의 실험처럼, 나 역시 그에 의해 설계되었으므로. 그러나 나는 세계에 대한 신의 부재처럼 관망자로 존재하지 않는다. 나 역시 당신과 같이 불안한 시스템 속에서 떠돌아다닌다.

혹시, .....그도 우리처럼. ■

3) 도시는 우리에게 편리라는 당근을 주며 다른 손에는 감시와 통제라는 채찍을 들고 있다. 근대 시민 사회의 최고 덕목 중에 하나인 '질서'는 이런 당근과 채찍에서의 질서를 의미한다.